

마르크스 100년과 政治理論

李 洪 九

(서울대 社會大 教授)

<차 례>

序 論

- I. 마르크스이론은 규범이론인가?
- II. 國家, 社會, 級階

- III.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보편성과 폭력성
- IV. 正義와 自由
맺는 생각

序 論

마르크스는 분명히 탁월한 철학자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100년간 계속적으로 확산된 그의 명성과 영향력은 단순히 그의 철학적 입장이 지닌 깊이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르크스의 역사적 위치는 근대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수다한 혁명을 유발하고 권력변동을 정당화한 그의 정치이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최고이념으로 표방하고 존재하는 이른바 사회주의국가와 공산주의운동을 의면한 채로 마르크스의 역사적 위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마르크스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대하였음에 비하여 그의 정치이론이 부각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변증법에 입각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학문체계를 전개하면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정치이론을 분리시켜 체계화하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마르크스의 추종자들이나 그의 사상을 연구하는 후학들도 그의 정치이론만을 따로 정리하는 데는 적지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근년에 마르크스연구가 세삼 활발하여지고 있으나 그의 정치이론에 대한 분석이 철학적 내용에 대한 연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정치이론에 대한 연구부족을 그의 입장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로 메꿀 수는 없다. 정치란 경제란 기본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부차적 현상

이므로 독립된 이론전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순화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정치사상은 그의 초기저작에서 이미 정립되었으며 그것은 대체로 룩소의 정치관을 계승한 것이라는 판단도 과도한 단순화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마르크스의 정치이론이나 그 장단점을 오늘의 이른바 사회주의체제의 실태를 통하여 이해한다는 것은 더욱 무리한 것이다. 예컨대 스탈린체제가 지녔던 전체주의적 독재성과 극심한 교조주의는 마르크스 정치이론에 대한 이해를 저해하였음이 분명하며 따라서 스탈린의 소비에트를 통하여 마르크스를 논한다는것은 무리한 것이다.⁽¹⁾ 사회주의국가간의 갈등, 특히 중소분쟁을 마르크스 정치이론으로 설명한다는 것도 역시 무리한 것이다.

마르크스 1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그의 정치이론이 지닌 몇 가지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여 본다는 것은 바로 그의 역사적 위치를 균형있게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다행히 마르크스 정치이론에 대한 Avineri (1968)와 Miliband(1977)의 연구결과가 근년에 출간되어 우리의 노력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 한정된 논문에선 마르크스 정치이론을 포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다음 네 가지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事實과 規範의 관계와 규범이론의 가능성 ; 둘째, 국가, 사회, 계급의 관계와 정치의 미래 ; 셋째,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보편성과 폭력성의 문제 ; 넷째, 마르크스이론에서의 正義와 자유의 의미.

I. 마르크스이론은 규범이론인가?

18세기로부터 비롯하여 마르크스가 활동한 19세기에 이르러 서구세계를 세차게 휩쓴 두 개의 물결은 大衆化와 科學化였다. 대중사회의 출현과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성장은 대중의 정치참여에 필요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수요를 자아내었고 마르크스이론은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강력한 정치이념으로 등장하였다. 한편 마르크스이론은 대중화의 물결뿐 아니라 과

(1) Henri Lefebvre는 *Problèmes Actuels du Marxisme*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스탈린적 해석이 강요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당초에 착상한 정치 및 국가에 대한 비판은 소멸되어 버렸다.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포기하므로써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조아국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의 능력도 상실하게 되었다.”(Lefebvre, 1975:49).

학회의 물결을 타는 데도 앞장을 섰다. 마르크스는 그의 철학적 입장의 특징을 과학적이라는 것으로 자처하였으며 이른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제창하였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과학성에 대한 집념은 그의 이론을 전통적 형이상학이나 근대적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과학의 일반이론의 경지로 이끌어 올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러한 성공은 과학적 설명이론이 내포한 한계성도 수긍해야 된다는 어려움을 수반하였다.

事實과 價値, 理論과 實際, 說明과 評價 등 서로 대치되는 二元論的 구조의 논리를 밝히고 그 논리가 설정한 구별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과학적 입장이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과학적 이론의 역할이며 가치판단이나 규범에 입각한 실제적 행동을 처방하는 것은 그 이론의 영역 밖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이나 실제적 행동에 대한 처방의 정당성을 체계화하는 것은 규범이론의 영역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이론이 과학적인 것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규범적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과학과 혁명에 동시에 충실하려는 데서 비롯된 결과였다. 그러한 마르크스의 노력이 성공하였다면 그것은 사실과 가치, 이론과 실제, 설명과 처방, 과학과 혁명 등의 이원론을 초월하고 통합한 새로운 철학의 등장을 뜻한다. 그 반면에, 그러한 노력이 실패하였다면 방법론적 오류에 기인한 이론적 혼란을 조성하였다는 판단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과 가치의 대결을 비롯한 일련의 이원론을 극복하려는 마르크스의 노력에 대한 전면적 분석은 그의 정치이론이 지닌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하려는 이 제한된 논문에서는 시도될 수 없다. 단지 그의 정치이론의 경우, 그것이 규범적 및 실제적 처방의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쉽사리 인정될 수 있다. 정치의 선택의 과정이며, 선택은 가치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바로 그러한 정치의 본질적이고 혁명적인 변동을 예측하고 처방하는 마르크스의 정치이론이 아무리 과학적이라 하여도 규범성을 내포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마르크스의 정치이론은 그 과학성을 희생할 수는 있어도 규범성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방법론적 순수성에 대한 집념이 병적으로 강한 서구학계에서는 마르크스철학의 과학성과 규범성의 구별을 둘러싸고 열띤 논

쟁이 계속되고 있다. 마르크스 해석에 있어 이른바 「인간주의자」와 「과학주의자」의 대결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만약 마르크스이론이 지닌 방법론적 모순, 예컨대 이론적 판단과 실제적 상황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모순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에 대처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시사하는 학자도 있다. Bottomore에 의하면, 첫째는 마르크스이론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의 이론 속에 사회에 관한 과학적 이론과 규범적 이론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Bottomore, 1981: 1-21). 마르크스가 생전에 활동하는 동안 그의 이론적 분석과 노동운동에 대한 충성심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즉 노동운동의 실태는 그의 이론에 대한 경험적 실증이 되었으며, 그러한 이론의 과학적 증명은 실제적 노동운동에 대한 그의 신념을 굳혀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Bottomore, 1975: 85). 그러나 마르크스가 사거한 후 그의 이론을 분석 및 해석하는 데 있어 과학이론과 규범이론의 구별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다. 마르크스즘이 지닌 규범적 사회이론을 부각 및 발전시킨 것이 Fromm, Gramsci, Marković 등의 시도였다면(Fromm, 1975; Gramsci, 1971; Marković and Cohen, 1975), Croce, Schumpeter, Althusser 등의 노력은 과학적 사회이론으로서 마르크스사상을 이해하려는 것이었다(Croce, 1913; Schumpeter, 1976; Althusser and Balibar, 1970).

마르크스가 시도한 과학성과 규범성의 통합이 과연 성공하였는지, 또는 이원성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였는지는 별문제로 치고, 그가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실천」(praxis)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해소시키려 노력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 경우에 실천이란 인간이 그를 둘러싼 상황적 조건을 의식적으로 변동시키고 창조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러한 의식적 변동, 즉 혁명을 가능케 하는 참된 철학이란 단순히 세계를 이해할 뿐 아니라 개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며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철학이 지향하는 바였다고 할 수 있다. 실천력이 결여된 지식이나 이념은 공허한 유희라고 마르크스는 항상 비판하였다. 그러기에 적어도 그의 정치이론에 있어 마르크스는 구체적 실천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러한 구체적 실천의 차원에서 마르크스가 기존체제에 대한 저항의 문제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어 프롤레타리아가 지닌 역할에 역점을 둔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정치이론이 기존체제에 대한 저항과 전복을 기도하는 혁명의

실천론이라면, 이론과 실재를 연계시켜 그러한 혁명의 실천론을 가능케 한 것은 청년 헤겔학파의 공헌이라고는 Avineri는 지적하고 있다(Avineri, 1968: 132-134). 이미 1840년에 Arnold Ruge는 헤겔의 변증법이 현실비판에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치적 저항의 기초가 되는 「실천적 관념론」의 전개를 주장하였다. 이론적 해방의 궁극적 목표는 실천적 해방이며, 실천이란 이론의 정신 속에서 대중이 수행하는 운동이라고 Ruge는 말하였다. 한편, Feuerbach도 한 사람의 머리 속에 있는 이론을 여러 사람의 단결을 가져오는 이념으로 만들어 대중조직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실천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론과 실천의 연계에 관한 이와 같은 청년 헤겔학파의 공헌을 토대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조직과 의식을 통한 혁명을 처방한 것은 마르크스 정치이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혁명적 실천이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일치되는 변증법적 내용을 지녔다고 보았다. 혁명적 실천이란 객관적 차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인간해방으로 향한 프롤레타리아의 조직화이며, 주관적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조직화에 참여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가 스스로 성취하는 자기개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의 새로운 계급의식을 통한 자기개조와 새로운 조직을 통한 정치화가 유기적 순환관계를 이루는 것을 마르크스는 혁명적 실천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혁명적 실천을 논하는 데 있어 프롤레타리아의 자기개조와 조직화를 중추적 요소로 취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실천은 적절한 이론을 전제로 한다고 계속 강조한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와 역사에 대한 적절한 지식은 세계를 개조하여 새로운 역사의 章을 여는 전체조건이라는 것이다. 역사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만이 이를 이해하는 주체와 그러한 이해의 대상이 된 객체를 함께 변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無知를 통한 혁명적 실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입장이라면 이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첫째, 역사와 현실을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은 혁명적 실천을 처방하는 규범이론의 필요조건인가? 만약 그렇다면, 자본주의에 대한 적절한 설명없이 처방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부당한 것이다. 마르크스 사거 100년이 지난 오늘 그의 추종자들이 내세우는 정치이론이 퇴색된 것이라면 그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설명을 토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마르크스 특유의 과학적 이론은 규범적 이론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마르크스는 그의 변

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과학적 이론을 적절히 이해한다면 필연적으로 혁명적 실천에 참여케 된다고 말할 것이다. 혁명의식이 존재하면 혁명은 필연코 일어나기 때문에 혁명의 불가피성이란 무의미한 개념이라는 지적은 이런 뜻에서 재미있는 것이다(Avineri, 1968: 144). 한편, 진리를 알면 진리에 거역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입장도 마르크스와 연관시켜 재미있을 수 있다. 셋째, 현실에 대한 이해와 현실개혁을 위한 실천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프롤레타리아의 意識은 인간이 과거에 지녔던 의식들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것인가? 이에 대한 긍정적 대답은 마르크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프롤레타리아도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시켜 의식의 역사의 새 단계로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이론과 실제, 설명과 평가, 예측과 처방을 통합하는 이론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론의 차원에선 수긍될 수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의 변증법이 그러한 전통적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론을 수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명제」 특히 열한번째 명제가 그러한 주장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만 하여 왔다. 그러나 진정한 과제는 세계를 바꾸어 놓는 것이다”(Marx and Engels, 1959: 245). 이러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혁명이론의 필연성보다는 타당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혁명의 타당성은 오직 그 필연성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결정론적 입장에 마르크스는 얽매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과학적 이론이 설명하는 필연성은 혁명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의 변증법은 과학적 이론과 규범이론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새로운 인식론의 전개라고 할 수 있으나 논리적 딜레마의 은폐라고도 보여질 수 있다. 이것은 뒤에서 언급될 마르크스의 도덕론, 특히 正義에 대한 입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현상은 단지 그 사회의 생산구조와 관계를 반영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마르크스의 입장에 충실한다면 사회정의란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고, 따라서 어느 사회에도 규탄받을 不義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부르주아사회에는 부르주아正義가 있으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도덕적으로 규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正義와 不義에 대한 기준

없이 과연 혁명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정녕 마르크스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그의 변증법에 뿌리박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불가치적 이론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따라서 혁명을 처방하는 기준의 상대성으로 말미암은 딜레마는 있을 수 없다는 과감한 해석도 물론 가능하다(Edgley, 1982: 21-38). 과학적 분석에 근거하면서도 과학이론이 지닌 불가치성을 초월하여 혁명적 행동을 처방하는 규범성을 마르크스 변증법은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는 Kant나 절대적 도덕율에 대한 의회를 내세우는 Hume의 입장 등을 기초로 한 자유주의적 관용론, 또 그러한 윤리적 입장이 가미된 유로 콤포니즘과 같은 윤리적 사회주의는 비마르크스주의적인 것으로 단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혁명을 중심으로 한 정치이론의 차원에서 볼 때,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과학적 분석에 토대를 둔 규범이론이라고 성격지을 수 있다.

II. 國家, 社會, 階級

마르크스철학이 대상으로 한 근대정치는 전통적 정치에 비하여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지녔다. 첫째로, 대중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면서 대중은 가장 중요한 권력자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둘째로, 민족국가(nation-state)가 정치과정의 핵심을 이루는 형태로 나타났다. 마르크스는 대중의 정치참여의 문제를 그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의 이론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치밀하게 구성된 이론을 전개하지 못한 채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하면 국가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는 막연한 결론에 집착하였다. 대중의 정치참여의 형태나 내용이 변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고가는 것이며, 따라서 대중시대의 정치에 대한 새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한계성을 지닌 채로,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에 대한 이론에 치중하면서 마르크스는 국가, 사회 및 계급에 대한 생각을 부수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미 서두에서 지적한 대로 마르크스가 국가를 비롯한 정치현상을 경제구조에 부수된 종속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자주 인

용되는 『정치경제적 비판』의 다음 귀결들이 그러한 해석을 강요한 좋은 예이다: “모든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진정한 토대인 경제구조를 구성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 및 정치적 가공구조(superstructure)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의식이 존재한다. 물질적 차원에서의 생산형태가 사회, 정치 및 정신적 차원의 성격을 결정한다. 인간의 意識이 그들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정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위치가 그들의 의식을 결정한다”(Marx and Engels, 1959: 43). 그러나 이러한 귀결은 마르크스의 기본적 정치관 및 국가관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잇점이 있는 반면에 그의 입장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취약점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마르크스의 국가관은 평면적으로 도식화된 기초구조와 가공구조의 관계에서 논리적으로 연역된 것이 아니라 헤겔철학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가볍게 간과될 수도 있다.

헤겔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와 국가를 분리 및 대치시켜 생각하였다. 시민사회에선 여러 갈래의 특수한 사회세력과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갈등관계를 조성하는 데 비하여, 국가에선 그러한 갈등관계를 초월한 통합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데 비하여 사회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질적 생활은 정치구조의 영역내가 아닌 외부에 존재한다는 것이 헤겔의 입장이다. 이러한 헤겔의 입장에 정면으로 도전한 마르크스는, 물질적 생활 즉 경제구조는 정치구조의 영역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구조의 성격을 결정하여 주는 기본요소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가가 개별이익이나 세력간의 갈등을 초월한 보편성을 지녔다는 것은 기만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는 특정세력이나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입장은 이미 지적한 대로 경제에 대한 정치나 국가의 종속성을 도식적으로 주장하려는 결과이기보다는 19세기 자본주의 국가의 구체적 상황분석을 통한 헤겔철학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헤겔의 역사철학의 모델을 바탕으로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입장에서 사회와 국가 또는 정치의 관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고대에는 정치의 사회화가, 중세에는 사회의 정치화가, 그리고 근대에는 사회와 국가의 분리와 그에 따른 소외의 제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였다.⁽²⁾ 그리고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여 인간을 영구히 해

(2) 마르크스의 소외론에 관하여는 鄭文吉(1978:37-112) 참조.

방식기는 새로운 단계가 프롤레타리아혁명을 계기로 시작된다고, 또 되어야 한다고 예측 및 처방한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노력은 국가를, 갈등을 초월한 정신적 통일체로 파악한 헤겔의 관념론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한다는 차원에서선 중요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 자신의 국가관이나 정치관은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마르크스의 입장을 극단적인 유물론적 결정론이라고 해석한다면, 따라서 국가는 단순히 생산구조의 성격을 반영하며 특정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고 한다면 그의 이론은 치명적 한계성을 노출할 수 밖에 없다. 헤겔의 극단적 관념론과 같이 마르크스의 극단적 유물론도 교조적 보편성에 대한 집착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한계성,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실증적 예외에 직면한다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그 반면에 마르크스의 이론을 비교조적인, 즉 유연성있는 정치이론으로 해석한다면 그만큼 설득력이 증가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마르크스의 원전에 보다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 부르주아국가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을 들 수 있다.

국가는 사회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며 통치계급의 한 수단이라는 명제가 국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명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는 계급과 생산수단 등 여러 요소의 배합에 있어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의 기초구조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토대를 둔 국가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며 마르크스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³⁾ 자본주의는 그 전개과정에서 시간적 및 공간적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자본주의국가의 형태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경제구조와 국가형태의 관계는 추상적인 차원에서선 일반론적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차원에서선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서만 서술될 수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부인하지 않았다. 물론, 자본주의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를 지녔다고 부르주아 사회구조를 토대로 한 그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흐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하나의 「fiction」임을 마르크스는 「고타강령 비판」에서 지적하고 있다(Marx and Engels, 1959: 127). 그러나 마르크스가 모든 국가는 계급국가라고 일반론적 차원에서 정의한 것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여 그 형태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

(3) Duncan(1982: 135-136). Duncan에 의하면 이러한 마르크스의 입장은 1862년 12월 28일 Kugelmen에게 제기한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는 동일하다는 난감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마르크스이론의 불필요한 왜곡이 될 수 있다. 1935년 제 7차 세계총회까지 나치스와 서구민주국가의 차이를 인정치 않았던 코민테른(Comintern)의 자세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Miliband, 1977: 75).

마르크스 정치이론을 교조적으로 해석할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국가의 기능과 목적을 논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계급의 압제수단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계급의 힘과 국가의 힘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다. 계급의 힘은 영향력(influence)인데 비하여 국가의 힘은 권력(power)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영향력이 권력의 성격과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영향력이 권력으로 변하는 방법과 과정은 지극히 복잡한 것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 부르조아계급이 결정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곧 국가권력을 장악한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을 실제로 보관 및 집행하고 있는 관료제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가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료제가 지닌 권력이 부르조아계급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마르크스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행정부는 사회적 갈등과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예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⁴⁾ 국가가 부르조아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과 부르조아의 통치수단이라는 것은 상당한 뉴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국가 사이에도 그 형태나 내용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시인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있어 국가의介入度는 자본주의국가의 성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른바 고전적 자유주의국가에서는 국가의 사회관계, 특히 경제관계에 대한 개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규범화된 데 비하여, 부국강병을 위한 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수조건으로 수긍된다는 차이를 마르크스는 감지하고 있었다. 민주적 자본주의국가와 독재적 자본주의국가의 차이가 지난 100년간 얼마나 확연하게 되어 갔는가를 마르크스가 충분히 예측하지는 물론 못하였겠지만, 자본주의국가의 성격에 따라 프롤레타리아계급의

(4) 이러한 지적은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에서 찾아볼 수 있다(Marx and Engels, 1959:345-348).

성장과 의식화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그도 이해하고 있었다.⁽⁵⁾ 공화국적 성격을 띤 자본주의국가가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조직화와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와, 전체주의적(나치스는 전체주의적) 체제를 택한 자본주의국가가 정치적 자유와 그에 따른 정치참여의 기회를 극도로 제한한 경우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권의 보편화도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수긍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긍정적 개혁이 과연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어떻게 공헌하느냐는 것은 마르크스 혁명론의 문제점인 동시에 그의 사거후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미 前章에서 지적한 대로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의식이 「인간적 해방」을 가능케 하는 진정한 혁명의 필요조건이라고 믿었다. 그러한 프롤레타리아의 의식화는 정치참여를 통하여 촉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치참여의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는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정치적 해방」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⁶⁾ 그러나 정치적 해방은 혁명의 전제조건이지 인간적 해방을 가져오는 혁명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한 인간해방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거쳐서 국가의 소멸과 더불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그런데 현존하는 국가체제의 파괴가 어떻게 프롤레타리아독재 및 국가의 소멸로 연결되느냐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나 계획이 비교적 부실하다는 것은 마르크스연구자들 가운데서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Miliband, 1977: 189). 아마도 마르크스는 19세기 유럽의 자본주의국가라는 상황 속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어떻게 성장하여 지배적 계급이 되느냐는 정치적 해방의 문제는 구체성을 띤 정치이론으로 취급하였으나 궁극적 인간해방의 문제는 정치이론의 영역 밖에서 역사발전의 추상적 일반론으로 다루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독재나 국가의 소멸은 정치적 문제라기 보다는 역사의 문제로 고려되었고 그러한 차원에서 언급되는 「국가」란 경험적 의미 보다는 추상적 의미가 훨씬 강하게 된다.

국가의 소멸에 관하여는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입장을 달리 하였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Avineri, 1968: 202-207). 엥겔스가 말하는 「국가의 사멸」

(5) "Class Struggle in France"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Marx and Engels, 1977: 281-317).

(6) 이러한 입장은 "On the Jewish Question"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Absterben des Staates)은 생물학적 유추인 데 비하여 마르크스가 사용하는 「국가의 지양」(Aufhebung des Staates)은 변증법적 함축을 지닌 철학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 「지양」이란 변증법적 과정에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선다는 것을 뜻한다. 현대국가는 사회의 여러 이익이 서로 갈등하는 특수적이고 이익지향적인 면과 보편성에 대한 이상추구란 면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끝없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한 긴장관계를 극복하는 길은 사회와 대치되는 국가의 지양을 변증법적 차원에서 가져옴으로써 국가를 초월한, 즉 인간혁명 이후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국가의 지양이 왜 정치의 종말을 의미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치밀한 이론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모든 갈등의 해결을 계획하기보다는 갈등 자체의 종말을 가져오고 싶다는 마르크스의 종말론적 유토피아니즘을 반영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정치적 해방과 연관된 구체적 차원에서의 정치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유연성을 보인 데 비하여 인간적 해방과 연관된 추상적 차원에서 국가와 정치의 종말을 논할 때는 종말론자들의 공통적 성격인 교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Ⅲ.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보편성과 폭력성

마르크스철학, 특히 프롤레타리아혁명론을 핵심으로 한 정치이론은 보편성을 띤 일반이론인가? 또는 19세기 유럽이란 시간적 및 공간적 특수성에 제약된 경험이론인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무난한 대답은 마르크스이론을 19세기 유럽이란 경험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보편적 일반이론이라고 성격지우는 것이다. 헤겔의 관념론적 역사해석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 헤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편론을 지향하였음에 틀림없지만 19세기 유럽의 자본주의체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 그의 이론이 경험적 특수성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는 균형된 해석이다.⁽⁷⁾ 그러나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갈등에 대한 그러한 무난하고 균형있는 해석을 단일하게 수증할 수 없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다. 첫째, 프롤레

(7) 헤겔이 보편성을 중요시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정치체제를 선택하는 데는 사회가 지닌 특수한 문화와 전통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Hegel, 1896: 282).

타리아혁명과 자본주의의 모순관계에 있어 보편론에서 벗어나는 예외의 문제, 그리고 둘째,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수행방법으로서의 폭력의 문제는 마르크스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갈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보편성을 믿었다. 개별사회가 지닌 경제구조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도래 및 성숙의 시기와 내용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사회가 결국 자본주의를 경험한다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필연으로 간주하였다. 그러한 자본주의의 보편성을 전제로 하여 프롤레타리아혁명과 그로 인한 사회주의의 도래도 보편적 필연성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필연성에 대한 예외, 즉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의 가능성을 마르크스가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만이 프롤레타리아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은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일 수 없으며, 프롤레타리아혁명을 통하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예외의 문제에 대하여는 만족할 만한 대답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마르크스도 자본주의의 보편성은 베버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ideal type로 취급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Lukács, 1971:95). 그러한 보편적 모형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은 러시아 10월혁명이었다.

마르크스는 물론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혁명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띤 나라에서 혁명이 오히려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1847년의 『공산당 선언』에서 그는 혁명이 독일에서 먼저 터질 것을 예상하였고 1882년의 『공산당 선언』 러시아판 서문에서는 혁명의 도화선이 러시아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Avineri, 1968: 151). 그러나 마르크스가 말하는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이었다. 뒤늦게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부르주아와 똑같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충돌이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전제조건이라는 마르크스의 입장은 러시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레닌도 1905년에는 러시아의 노동계급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후진성에서 오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부르주아혁명은 노동계급에 지극히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었다.⁽⁸⁾

(8) "Two Tactics of Social Democracy in the Democratic Revolution"에 나타난 레닌의 입장은 Miliband (1977:81) 참조.

결국 마르크스는 구체적 예외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보편성에 일관성있게 집착하였다는 해석이 타당한 것이다.

자본주의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보편성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이 봉착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민족주의와 민족독립을 위한 혁명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유럽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과 민족주의의 발전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자본주의체제의 단위로 근대국가를 삼게 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자본주의, 독일 자본주의, 영국 자본주의를 논하게 되고, 프롤레타리아혁명도 개별국가를 단위로 분석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보편성을 시인하는 마르크스의 입장에선 국가의 특수성에 관계없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도 당연하였다. 그가 봉착한 어려운 문제란 자본주의의 성숙이 없이 일어난 민족해방운동 또는 민족독립의 경우이다. 그러한 경우란 대체로 20세기에 일어난 현상으로 마르크스가 예견하기에는 너무나 역사적 간격이 컸다. 그러기에 마르크스이론의 예측력 부족을 책할 수는 없다. 단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한 데 비하여 민족주의의 보편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민족주의의 혁명적 잠재력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특히 자본주의의 모순과는 직접적 관련없이 일어나는 민족혁명의 가능성을 가볍게 취급하였다는 것이 프롤레타리아혁명이 보편성에 대한 그의 이론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발전 이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민족혁명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민족혁명은 자본주의의 성장과 붕괴를 주제로 하고 있는 마르크스이론의 영역 밖에 속한다. 이 문제에 대한 혼선은 민족혁명의 주도세력이 마르크스주의를 혁명의 정당화를 위한 이론으로 원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물론 그 책임은 마르크스에게 속하지 않는다.

마르크스 혁명이론의 보편성이 직면하는 중대한 문제로는 예외성과 더불어 폭력성이 있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은 폭력에 의거하여야 되느냐는 문제이다. 이미 고찰한 대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성숙과정을 거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진전하는 것을 그의 변증법적 역사관에 의거하여 ideal type로 규정하였다. 그러한 혁명적 전환의 모델에서 폭력이 반드시 혁명의 방법으로 처방될 필요가 없다는, 즉 폭력이 혁명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마르크스가 취한 것을 별로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은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그러한 입장의 토대가 윤리적인 것인지, 또는 변증법적인 것인지는 중대한 문제이다.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방법으로 폭력의 필연성을 부인하였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변증법적 입장에 의거한 것이지 어떤 윤리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제 I 장에서 지적한 대로 마르크스는 사실과 규범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론과 그에 의거한 윤리적 상대주의를 수긍하지 않았다. 그의 변증법은 전통적 논리를 넘어서 현상타파를 위한 혁명을 처방하는 실천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미 언급하였다. 이렇듯 윤리적 입장을 배격하면서도 그의 특유한 혁명적 실천을 주장하는 마르크스 변증법의 방법론적 타당성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마르크스의 혁명관과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개혁을 추구하는 윤리적 사회주의, 예컨대 유로 콰뮤니즘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일리가 있다.⁽⁹⁾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고조시키는 것이 프롤레타리아혁명으로 향한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마르크스가 혁명수단으로서의 폭력을 윤리적 이유에서 부인할 수는 없다. 폭력만이 유일한 혁명수단이란 상황에선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을 고조시키는 유일한 또는 최선의 방법이 폭력이라는 교조적 명제의 타당성을 마르크스는 수긍하지 않았다. 예컨대, 1872년 제 1 차 인터내셔널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마르크스는 혁명이 궁극적으로 폭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을 하면서도 미국, 영국, 네델란드에서는 노동계급이 그 목적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Miliband, 1977: 79).

마르크스가 혁명의 방법으로서의 폭력을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린 것은 테러나 음모에 대한 그의 개인적 혐오를 반영하는지도 모른다. 마르크스가 프랑스혁명에서의 자코뱅 테러를 환상에 입각한 실패로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데에서도 그러한 개인적 경향이 엿보이는 것 같다. 물론 마르크스의 비판은, 테러가 혁명적 분위기의 미숙한 상황에서 시도

(9) Edgley(1982:30-31). 유로 콰뮤니즘이 과연 윤리적 사회주의인가에 대하여는 고려의 여지가 있다. 유로 콰뮤니즘의 현황에 관하여는 『社會科學과 政策研究』에 실린 拙稿 참조(1979; 1981; 1982).

된 혁명의 실패가 자아낸 현상이라는 이론적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¹⁰⁾ 그러나 인간의 행동 뿐 아니라 그의 사고까지 압제하는 자꼬뱅 테리에 대한 마르크스의 혐오는 이미 1842년에도 직설적으로 기록된 바 있다.⁽¹¹⁾ 마르크스가 음모적 성격을 띤 행동에 가담하기를 꺼린 것은 그의 런던 생활에서의 대인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혁명의 폭력성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그의 유물사관에 입각한 혁명론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 마르크스의 테리나 음모에 대한 혐오도 윤리적 이유보다는 변증법적 이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즉 혁명은 역사의 법칙에 대한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실천에 의하여 성취될 것이지 음모나 테리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자본주의가 지닌 갈등요소의 변증법적 지양을 통하여 이루어져야지 일부 요소의 물리적 제거에 의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의 지양」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성숙을 거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보편적 모델로 삼는다면 거기서는 혁명의 수단으로서의 폭력이 필연시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폭력의 사용은 대체로 자본주의가 미숙한 또는 부제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혁명에서 보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그 가정의 타당성은 경험적 차원에서 검증할 수 밖에 없다. 만약 그러한 가정에 타당성이 있다면 이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예외성과 폭력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또 하나의 가정을 가능케 한다.

Ⅳ. 正義와 自由

마르크스는 사회과학자로서,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제창자로서 탁월하였다. 사회변동에 대하여 시도된, 그의 유물론적 변증법에 의거한 설명은 사회과학의 일반이론으로서 지극히 강력한 것이었고, 마르크스주의라는 혁명적 이데올로기는 수다한 정치변동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소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전통적 정치철학의 문제, 특히 「정의」나 「자유」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느

(10) 자꼬뱅의 실패에 관한 분석은 “On the Jewish Question” 참조.

(11) “Notes about the New Prussian Censorship Regulations”(Avineri, 1968: 188).

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적지않은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은 그의 이론의 타당성이나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전개가 미비하다는 것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헤겔철학을 비롯한 기존이론의 오류나 자본주의체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데 지극히 예리한 데 비하여 그 자신의 이론의 타당성과 그가 목적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는 소홀하였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입장이 증명의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리라고 믿는 독선적 오만을 적어도 지적 차원에서 지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자본론』과 같은 방대한 작업은 그의 유물사관의 타당성을 증명하려는 학문적 노력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멀리는 플라톤으로부터 가까이는 칸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가 고심한正義의 문제를 가볍게 정리하였다고 믿는 것은 지적 오만의 결과라는 비판의 여지를 남겼다.

마르크스의正義에 대한 입장은 그의 규범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파라독스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도덕이나 종교는 생산구조와 관계의 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주어진 경제구조의 발전단계나 내용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자본주의는 그 경제구조의 성격상 노동계급을 착취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당연한 현상을 도덕적으로 규탄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산당 선언』을 비롯한 수다한 저서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비리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도대체 그러한 규탄이나 비판의 도덕적 근거나 기준은 무엇인가? 비리나 불의를 비판하려면 그에 상대되는正義의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마르크스는 그의 유물론적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자본주의 체제는 규탄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며 그 분석은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正義란 경제적 기본구조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규범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에 동조하는 마르크스주의자는 대부분 기존체제나 상황에 대한 도덕적 분노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는 않았고 또 그러한 정치적 필요때문에正義나 진리와 같은 상징적 표현을 구사하여 혼선을 초래하였다. 예컨대 1864년 인터내셔널의 개회연설에서 마르크스는 「진리」, 「정의」, 「권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것이 상황적 필요 때문에 부득이하였다는 것을 앵겔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변명하고 있다(Lukes, 1982: 179-180). 이렇듯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상징적 표현을 원용한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이론의 혼선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마르크스이론이 正義를 상대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성있게 취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혁명이나 미래의 공산사회가 正義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논리적 귀결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데서 파라독스의 인상을 질게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사회를 正義의 차원에서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의 Proudhon에 대한 비판 등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¹²⁾ 유럽정치사상의 전통에서 正義란 대체로 정치적 공동체와 그 운영을 위한 법체계에 연관되어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정의란 법과 국가의 정당성의 기초가 된다는 전통적 사고가 마르크스에게 수긍될 수는 없었다. 이미 국가와 법을 경제구조에 종속된 가공구조라고 규정한 이상 그들의 정당성의 기초가 된다는 正義는 한낱 환상이든지 또는 가공구조에 서식하는 이데올로기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Wood, 1980: 5). 이렇듯 기존 및 현존사회와 연관된 正義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취한듯 싶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하여 성취될 미래사회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正義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명제』의 열번째에서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지칭한 「인간사회」(human society)는, 착취는 없어졌으나 경제적 교환은 남아있는 초기와 착취와 교환이 함께 사라진 후기로 나누어지며 레닌은 전자를 사회주의, 후자를 공산주의라고 불렀다. 공산주의사회가 사회주의사회보다 발전된 것이라고 할 때 그 「발전」이란 단순히 역사의 변화를 서술하는 것인지 또는 어떤 목적을 보다 충만하게 달성하였다는 평가가 내포되었는지가 문제의 쟁점이 된다. 마르크스가 지향하는 미래사회, 즉 「인간사회」는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진 가운데 각개인이 사회적 및 자연적인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자기완성을 기하는 단계라는 뚜렷한 평가의 기준이 내포되어 있음에 틀림없다(Marx, 1973: 488). 공산주의사회가 사회주의사회보다 우월하다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규범적 원칙에 의거한 것이라는 해석은 타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正義의 문제는 마르크스 해석에서 소멸된 것이 아니다.⁽¹³⁾

이렇듯 마르크스이론에서 소멸될 수 없는 正義의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12) 마르크스의 정의론, 특히 Proudhon 등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R.C. Tucker (1970: Ch. II) 참조.

(13) 이러한 해석의 대표적 예로는 Moore(1980).

역사적 필연성이 그에 대한 소망을 처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설사 공산주의사회의 도래가 역사적 필연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더라도 그것이 소망스럽다는 평가를 수반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회구하는 인간사회의 도래를 바람직한 미래로 처방하기 위하여는 인간의 자율성을 기본규범으로 하는 칸트의 도덕철학이 필요하다는 결론에서 이른바 칸트적 마르크시즘(Kantian Marxism)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하여 마르크스 본래의 입장을 고수하는 Kautsky의 노력이 전개되었다(Kautsky). Plekhanov와 레닌도 마르크스의 입장을 지키려고 진력하였으며 Trotsky도 예외는 아니었다(Trotsky et al., 1979).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혁명의 필연성이 동시에 이를 바람직한 대상으로 처방할 수 있게 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답은 끝내 마련되지 못하였다(Kolakowski, 1978: 251-254). 이것은 마치 왜 구체성이 추상성보다 바람직하느냐는 원초적 문제에 대하여 마르크스가 헤겔과 같은 체계적인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규범에 대한, 특히正義에 대한 마르크스이론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후학들이 창의적 수정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正義의 의미가 생산구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적正義의 의미를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중심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자본주의사회가 지닌 비리를 규범적 차원에서 비판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갈등과 불평등과 소외가 사라진 공산주의사회에서의正義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이란 해석이다.⁽¹⁴⁾ 이러한 극단적인 해석보다 설득력이 많은 입장은正義의 의미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고 전자는 후자의 제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Lukes, 1982:195-205). Hume으로부터 시작된 경험주의의 전통에 의하면 사회와 국가는 인간의 이기심, 약간의 동정심,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경쟁과 갈등의 제도화이며 법과 정의는 그러한 제도의 정당화와 운영을 위한 규범이다. 마르크스는, 그러한 입장은正義의 좁은 의미를 대변한다고 규정하고 그 경우의正義는 특정사회의 경제구조와 계급이익을 반영하고 옹호한다고 믿는다.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는 종교가 만든 환상적 행복을 제거해야 되는 것 같이, 넓은 의미에서의正義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14) 이러한 해석의 대표적 예로는 Husami,(1980: 42-79).

는 좁은 의미의 正義와 그러한 환상적 正義를 가능케 하는 상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편, Habermas는 그의 「진리」에 대한 합의이론(consensus theory)을 근거로 마르크스의 正義에 대한 입장을 합의이론으로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적지않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Pettit, 1982: 207-228).

正義의 차원에서 봉착한 마르크스의 어려움을 자유의 차원으로 이전시켜 해결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리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사회의 불의보다도 부자유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Brenkert, 1980: 80-105).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자본주의제도는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인간의 자유는 문화적 및 사회적 경계를 초월한 보편성있고 본질적 규범이기에 마땅히 그러한 자유의 억압은 비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보편성있는 본질적 규범으로서의 자유는 앞서 논의한 넓은 뜻에서 정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正義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규범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대체로 正義보다는 자유를 마르크스는 더 즐겨 생각하였던 것 같고, 후학들의 마르크스 해석, 특히 청년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해석은 자유를 중심과제로 삼는 경향이 짙다.

마르크스는 자유의 신장을 단계적으로 보았다. 자본주의사회의 부르조아보다는 사회주의사회의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그보다는 공산주의사회의 인간이 보다 자유롭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렇듯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명제』의 세번째에서 지적된 대로 환경이 인간을 만드는 것에 못지않게 인간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즉 인간의 자율성이 자유의 본질인 것이다(Marx and Engels, 1959: 244). 그런데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조아보다 자기의 환경을 변동시킬 능력이 월등히 크다는 데서 보다 많은 자유를 향유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과 사회는 서로의 변동을 유발하는 순환적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미 Mill이 지적한 바 있지만 마르크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Mill, 1974:ch. 2). 마르크스의 입장이 지닌 특유한 점은 환경의 지배를 이탈하여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Mill이 말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에게만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입장은 그의 유물사관으로부터 연역된 것이다. 이렇듯 자유는 프롤레타리아가 지닌 혜택인 데 비하여 프롤레타리아계급에 속하는 것은 임의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즉 자유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마르크스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Smith, 1982: 232-235).

마르크스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에서의 완전한 자유는 결국 인간관계의 외면성에 관한 규범이 아니라 내면화 또는 내성화한, 즉 인간이 자신의 사고와 행동과 판단의 주인이 되고 그러한 자율적 의지의 합의로써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루소사상의 경향이 뚜렷한 것 같다.⁽¹⁵⁾ 그러나 자유를 성취하는 변증법적 관계의 주인공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관계의 총체가 이룩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며, 이것은 18세기에 유행한 사회계약론에서 보는 개인권리의 옹호를 수긍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⁶⁾ 마르크스가 개인주의를 결코 송두리째 배격하지 않았으며 단지 자유주의에 연관된 개인주의의 타당성을 부인하였다는 해석에는 일리가 없지 않다(D.F.B. Tucker, 1980). 그러나 공산주의사회에서 성취되는 자유는 보편적 역사법칙의 결과이며 새로운 인간이 자율적으로, 그러나 보편적으로 창조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에 대한 개인의 위치가 섬세하게 고려된 흔적은 없다. 마르크스는 그의 종말론적 예측이며 처방인 인간사회의 필연성에 집착한 나머지 그 유토피아 안에서 개인의 전체의 관계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Berlin이 말하는 「적극적 자유」를 주창하는 입장이 지닌 공통적 한계성일 수도 있다(Berlin, 1951; 李洪九, 1969b).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치관계를 소멸시킨다는 단순화된 정치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맺는 생각

마르크스철학을 정치이론의 차원에서 볼 때 지적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기록한 이 논문에서 마르크스 정치이론에 대한 포괄적 평가는 피하기로 한다. 단지 그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마르크스이론의 논리나 내용의 부실보다도 근대사의 특징을 보는 그의 관점이 지녔던 한계성이라는 우리의 생

(15) 루소의 입장에 관하여는 拙稿(1969 a) 참조.

(16) 사회를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개인이 형성하고 관계의 총체로 보는 입장은 Marx(1973: 265).

각을 맺는 말로 삼고자 한다. 산업혁명과 대중의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계급간의 갈등이 근대사의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급간의 갈등에 못지않게 중요한 근대사의 특징은 「개인」의 발전과 「근대국가」의 형성이다. 시민사회와 계몽주의의 발전은 사회공동체의 구성단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켰고, 봉건체제의 붕괴와 민족의식의 팽창은 「근대국가」를 유기적 정치공동체의 새로운 단위로 등장시켰다. 따라서 18세기 이후의 정치이론의 중심과제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었다. 마르크스가 개인과 국가 외에 계급을 또 하나의 정치단위로 취급한 것은 중요한 공헌이었다. 그러나 계급적 갈등의 소멸이라는 유토피아적 종말론에 치우친 나머지 개인과 국가,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해결될 중속적 문제로 간주한 것은 그가 근대사에 대하여 지닌 관점의 한계성을 노출한 것이다. 마르크스가 사거한 지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가 계속되는 정치적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李 洪 九

1969a 「Rousseau에 있어서의 抽象과 具體」, 『서울大學校 敎養論文集』, 第一輯,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413-420.

1969b 「積極의 自由와 消極의 自由」, 『韓國政治學會報』, 第3輯, 한국정치학회, 서울: 213-221.

1979 「탐시즘·유로커뮤니즘·社會福祉」,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1卷 第1號,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87-292.

1981 「유로커뮤니즘과 南歐政治: 이탈리아 共產黨의 歷史的 妥協의 意義」,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Ⅲ卷 第2號,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12.

1982 「유로커뮤니즘과 유럽의 위기 Ⅱ: 복지국가와 협동민주주의의 문제와 전망」,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第Ⅳ卷 第2號,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7-57.

鄭 文 吉

1978 『疎外論研究』, 文學과 知性社, 서울.

Althusser, Louis and Étienne Balibar

1970 *Reading Capital*, NLB, London.

Avineri, Shlomo

1968 *The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of Karl Marx*,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Berlin, Isaiah

- 1951 *The Two Concepts of Liberty*, Clarendon Press, Oxford.
- Bottomore, Tom
- 1975 *Sociology as Social Criticism*, Allen & Unwin, London.
- 1981 *Modern Interpretations of Marx*, Basil Blackwell, Oxford.
- Brenkert, George G.
- 1980 "Freedom and Private Property in Marx," in *Marx, Justice and History*, ed. by Marshall Cohen, Thomas Nagel and Thomas Scanl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Croce, Benedetto
- 1913 *Historical Materialism and the Economics of Karl Marx*, Howard Latimer, London.
- Duncan, Graeme
- 1982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in *Marx and Marxisms*, ed. by G.H.R. Parkin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Edgley, Roy
- 1982 "Revolution, Reform and Dialectic," in *Marx and Marxisms*, ed. by G.H.R. Parkin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Fromm, Erich (ed.)
- 1975 *Socialist Humanism*, Doubleday & Co., Garden City.
- Gramsci, Antonio
-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awrence & Wishart, London.
- Hegel, G.W.H.
- 1896 *Hegel's Philosophy of Right*, tr. by S.W. Dyed, George Bell and Sons, London.
- Kautsky, Karl
- 未詳 *Ethics and Materialist Conception of History*, tr. by J.B. Askew, Charles H. Kerr Co., Chicago.
- Kolakowski, L.
- 1978 *Main Currents of Marxism*, Vol. III, Clarendon Press, Oxford.
- Lefebvre, Henri
- 1975 *Problèmes Actuels du Marxisme*, 森本和夫 譯, 『マルクス主義の 現實的 諸問題』, 現代思潮社, 東京.
- Lukács, Georg
- 1971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tr. by Rodney Livingstone, The MIT Press, Cambridge.
- Lukes, Steven
- 1982 "Marxism, Morality and Justice," in *Marx and Marxisms*, ed. by G.H.R. Parkin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arković, Mihailo and Robert S. Cohen

- 1975 *Yugoslavia: The Rise and Fall of Humanist Socialism*, Spokesman Books, Nottingham.
- Marx, Karl
- 1973 *Grundrisse: Foundations of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tr, by Martin Nicolaus, Penguin Books, Harmondsworth.
- and Friedrich Engels
- 1959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ed. by Lewis S. Feuer, Doubleday & Co., Garden City.
- Miliband, Ralph
- 1977 *Marxism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 J.S.
- 1974 *A System of Logic*, Book 6, Toronto University Press, Toronto.
- Moore, Stanley
- 1980 *Marx on the Choice between Socialism and Capit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ettit, Philip
- 1982 "Habermas on Truth and Justice," in *Marx and Marxisms*, ed. by G.H.R. Parkin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chumpeter, J.A.
- 1976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5th ed., Allen & Unwin, London.
- Smith, G.W.
- 1982 "Marxism, Metaphysics and Individual Freedom," in *Marx and Marxisms*, ed. by G.H.R. Parkin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Trotsky L., J. Dewey and G. Novack
- 1979 *Their Morals and Ours: Marxist versus Liberal Views on Moralists*, 4th ed., Pathfinder Press, New York.
- Tucker, D.F.B.
- 1980 *Marxism and Individualism*, St. Martin's Press, New York.
- Tucker, Robert C.
- 1970 *The Marxian Revolutionary Idea*, W.W. Norton & Co., New York.
- Wood, Allen W.
- 1980 "The Marxian Critique of Justice," in *Marx, Justice and History*, ed. by Marshall Cohen, Thomas Nagel and Thomas Scanl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